

## 하인스 워드 '한국 혼혈 어린이들 가슴에 품다'

### 혼혈아동 지원 팔복재단 공동운영...연예인 바자회서 1억 기부 받아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0)는 지난 27일 오전 숙소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재닛 민처 팔복재단 총재와 만나 '하인스 워드-팔복재단(가칭)'을 한국에 운영키로 합의했다.

한국의 혼혈아동을 돋기 위해 설립되는 이 재단은 워드 측의 '도움의 손길 재단'(HHF,Helping Hands Foundation)과 팔복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워드 측과 팔복재단은 29일 오후 2시 이 호텔 국화룸에서 재단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워드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브로든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자선 바자회에 참석, 연예인

들로부터 행사 수익금에 1억원을 더한 기부금을 받았다.

그는 이어 오후 7시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풍산그룹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해 그룹 및 팔복 재단 관계자들과 만났고, 2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열리는 서울미식축구협회 주관의 '프리웨이볼' 결승전에 참석

국내 미식축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하인스 워드가 27일 오후 서울 청담동 브로든 아트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승리 기원 자선 바자회'에 참석, 브로든엔터테인먼트로부터 하인스 워드 재단 설립기금 1억원을 기부받고 있다.



### 신동엽, MBC PD와 '웨딩 입맞춤'

개그맨 신동엽(35)이 MBC 신혜윤(28) PD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은 27일 오후 5시30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예식은 신동엽과 친친한 사이인 탤런트 안재욱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주례는 송창의 전 MBC PD가 맡았다. 축가는 개그맨 유재석과 이혁재, 노홍철 등 신동엽이 대표를 맡고 있는 DY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직원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다음날인 28일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며 서울 성북동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할 예정이다.



### 봉준호 감독 뉴욕타임스서 작품세계 조명

#### '괴물'로 칸영화제 호평

뉴욕타임스가 영화 '괴물'로 칸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 봉 감독의 작품세계를 짚종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27일(현지시간) 영화란에 실린 서울발 기사에서 봉 감독은 머리속에 괴물을 가지고 있다면서 봉 감독은 이 괴물을 통해 관객들을 비명지르게 하고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영화적 재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봉 감독이 이같은 요소들을 은유와 아이디어를 통해 매우 계산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서 봉 감독은 다른 한국 감독들과는 달리 이상한 폭력장면을 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 안젤리나 줄리, 브래드 피트의 딸 출산

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줄리(30)가 27일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줄리의 연인인 브래드 피트의 홍보 담당자는 설명을 통해 "줄리와 피트가 2006년 5월 27일 나미비아에서 딸 실로 누벨 줄리-피트를 업었다"며 "더이상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신생아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SK와 함께 하는 장애우 행복 결혼식'



행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 커플, 박영우(27)-박효진(22)씨의 결혼식이 SK(주)와 OK웨딩클럽 광주센터의 도움으로 지난 26일 광주시 클럽버스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결혼식은 SK(주)가 매월 웨딩컨설팅서비스 'OK웨딩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우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한쌍을 선정해 실시하는 'SK와 함께 하는 장애우 행복 결혼식' 행사.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이들 부부는 혼인 신고만 한 뒤 생활해오다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 '타임 100' 선정, 세계 무대로 날아간 가수 비

## "무대 서면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해요"

'6년 전을 기억하라.' '타임 100'에 선정된 가수 비(24)의 휴대폰 화면에 적힌 문구다. 6년 전이란 연습생 시절. "난 이제 시작이다. 그때 마인드로 몸을 추슬러 달리겠다"는 뜻을 함축 한다.

#### 항상 '초심' 잊지 않기 위해 노력

27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JYP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레인(Rain)'이란 이름으로 성큼성큼 세계 무대로 걸어나간 비, 입가를 시원하게 울린 미소로 반긴다.

'타임 100' 선정 이후 본인 스스로는 달라진 게 없다. 단지 "영어를 하는게 살 길"이며 "청

소년기 잠 야자고 영어 공부할 걸" 후회했다고. 지금은 영어 단어책을 끼고 산다.

비는 "오히려 제 주위의 기대가 커졌고, 더 나은 무대, 노래를 위해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한다"고 했다. 이전 하루하루가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

비는 "내가 누구보다 특출나고 잘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누구보다 잘된다고 이상한 마음을 먹은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면 난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땐 내가 아니다"며 웃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전 소심해져요. 신인이던 누구든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배우려 합니다. 제가 남을 인정해야 남도 저를 인정해요."

정거하든요. 앞으로 설령 제가 변할지라도 '도리와 덕'은 지킬겁니다."

그의 활동 라인업은 이미 내년까지 나와있다. 현재 부산에서 박찬우 감독의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활영중이고 10월15일 4집 발매, 12월부터 5개월간 아시아권 11개국 투어에 나선다. 미국 진출은 내년 중순으로 미뤘다.

#### "아시아권 11개국 투어 준비"

비는 "미국 진출보다 체계적인 아시아권 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아시아권에 더 신경써서 자리잡으면 미국엔 더 쉽게 진출할 것 같다"고 했다.

### 차인표, 세계 빈민어린이를 위하여

#### 어린이 돋기 중창단 결성

#### 내달 1일 가수 데뷔



공개입장을 비롯, 각종 봉사 활동으로 잇따라 훈훈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탤런트 차인표가 이번에는 전세계 빈민 어린이들을 돋기 위해 중창단을 결성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 무대에 설 계획이다.

차인표는 국제 어린이 구호 기구 캠페션을 후원하는 중창 보컬 그룹 '캠페션 프렌즈'를 결성, 6월 1일~8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6층 하늘공원과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렌즈 오브 캠페션' 행사를 통해 가수로 '데뷔'한다.

차인표는 "사실 처음에는 나서는 것을 꺼려 그자 아내의 봉사활동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캠페션이라는 단체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공연은 1일 행사의 오프닝으로 소개되며 7일 오후 7시부터 이뤄진다.

차인표는 27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음반을 낸 사람도 없다. 하지만 캠페션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후원자들끼리 모여 결성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며 웃었다.

캠페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아내 신애리를 통해 캠페션에 관심을 갖게 된 차인표는 4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캠페션과 함께 인도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후 밴드 결성장을 결심하게 됐다.

차인표는 "사실 처음에는 나서는 것을 꺼려 그자 아내의 봉사활동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캠페션이라는 단체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차인표는 27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음반을 낸 사람도 없다. 하지만 캠페션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후원자들끼리 모여 결성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며 웃었다.

캠페션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아내 신애리를 통해 캠페션에 관심을 갖게 된 차인표는 4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캠페션과 함께 인도로 해외봉사를 다녀온 후 밴드 결성장을 결심하게 됐다.

차인표는 "사실 처음에는 나서는 것을 꺼려 그자 아내의 봉사활동을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인도를 다녀오면서 캠페션이라는 단체가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차인표는 27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음반을 낸 사람도 없다. 하지만 캠페션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후원자들끼리 모여 결성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며 웃었다.

차인표는 27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음반을 낸 사람도 없다. 하지만 캠페션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후원자들끼리 모여 결성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며 웃었다.

### '엄마야 누나야' 작곡가 안성현씨 별세

#### 지난달 25일 노환으로

#### 남평출신·6·25 때 월북

일제 강점기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와 해방 직후 '부용산'에 곡을 불인 월북 음악가 안성현씨가 지난달 25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입수된 북한의 문화신문 최근호(5.13)는 "민족음악 전문가인 공훈예술가 안성현 선생이 노환으로 4월 25일 오후 3시 8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했다"고 보도했다.

### 히딩크, 2연속 네덜란드 축구 '올해의 감독상'

호주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2006 독일 월드컵에 나서는 '월드컵 4강 정부사' 거느리 히딩크 감독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 리그 36명과 국가대표팀을 받았다.

네덜란드 축구전문지 '풋발 인터내셔널'은 27일(한국시간) "히딩크 감독은 세계 축구 지도자들의 주천과 선정 작업을 통해 뽑은 올해의 감독상 '리누스 미셸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리누스 미셸상은 네덜란드 프로축구 1부 리그 감독 36명과 국가대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0-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 행우회

▲재광 영암군 행우회 제 57회 정기총회=6월 3일(토) 오후 4시30분 운동장. 017-601-3843

#### 동창·동문회

▲목중·고 재광 동창회(회장 임동호) 제 29회 정기총회=6월 1일(목) 오후 6시30분 오페라하우스 컨벤션홀. 236-3399

▲광주·전남 영암구립초교 제 58회 전반기총회=6월 3일(토) 오후 5시 산천황호오리 진흙구이 223-5165

▲전남대 간호대 동창회 정기총회=6월 3일(토) 오후 4시30분 무등교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총동문 가족한마당=6월 4일(일) 오후 10시 대운동장. 011-9622-9707

#### 화촉

▲박전배(광주응변협회 회장)씨 장남 상훈(원주 MBC 기자)군 전의 수(양화 대표)씨 장녀 정미양=6월 3일(토) 낮 12시30분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서장석씨 장남 종원군 장상열(데미화랑 대표)씨 장녀 예준양=6월 4일(일) 오후 3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

▲고충석씨 장남 훈군 흥영성(서양화)씨 차녀 지은양=6월 4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호텔프리마 3층 그랜드볼룸.

####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

####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숙제 지도·보충집 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종 평일 오후 4시~밤 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고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 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모집=홈페션·커튼·웰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죽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촌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